방탄소년단, 10월 말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서 콘서트 연다

▶ 2면

본지 단독

전 세계 음악시장을 장악한 그룹 방탄소년단이 10월 말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스타디움 투어 콘서트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를 펼친다. 5월 미국 LA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출발해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과 프랑스 등 5개국 8개 도시에서 85만 팬들을 불러 모은 역량을 국내 무대에 쏟아 붓는다. 현재 일본 투어 중인 이들은 1년 만의 콘서트로 다시 국내 팬들을 만나며 이후 또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무대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포츠동아

2019년 7월 9일 화요일
sportsdonga.com 10판

1위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2년 연속 1위

이강철 감독의 '뚝심 리더십'과 KT 새 도전

〈"너희가 KT 역사다"〉 〈심판에 항의 배치기〉

감동 메시지-퇴장 배치기 '강철맨'에게 가을 향기가…

KT는 올해 89경기에서 42승을 거뒀는데 역전승이 19승에 달한다. 리그 전체 4위다. 경기 후 하이파이브 하고 있는 선수단. 스포츠동아 DB

'마법사 군단에 나타난 아이언맨!' 만년 하위권 팀으로 분류되던 KT가 달라졌다. 올시즌부터 지휘봉을 잡은 이강철 감독은 초보답지 않은 뚝심과 과감함으로 선수들의 패배의식을 걷어냈다. 이제 5위의 그림자가 손에 잡힐 위치까지 올라왔다. 창단 첫 가을야구 도전도 마냥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스포츠동아DB

야구기자들의 수다 'W베이스볼'

온화하면서 과감…선수들 패배의식 걷어내
이대은 마무리·적극적 앤드런 '결단력 최고'
코치때도 카리스마 철철 최고 참모로 꼽혀
첫 가을야구? 외인선발 좋고 '간다'에 한표!

스포츠동아 야구팀은 매주 월요일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KBO리그의 여러 소식과 뒷이야기, 다양한 전망까지 브레인스토밍 형식의 대화입니다. 회의실 현장을 날 것 그대로 야구팬들에게 전달해드립니다. 8일 야구팀 회의 참석자 : 이경호 차장, 정재우 전문기자, 장은상, 서다영, 최익래 기자.

이경호(이하 이): 우리끼리 편하게 '아이언 감독'으로 부르는 이강철 KT 위즈 감독이 이름 그대로 강철 같은 단단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될 정도로, KT는 최근 분위기가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 감독은 점잖은 신사 이미지인데 사실 코치 때는 카리스마도 강했고, 감독들이 참 좋아하는 참모였어요. 수석 코치 때는 과감하게 먼저 결정한 뒤 감독에게 후보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감독 첫 해인데 자신만의 분명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감한 작전, 선수 기용에 대한 두려움 없는 결단 등….

정재우(이하 정): 선수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홈런을 많이 맞아도 정면 승부를 하고 매년 10승을 넘기며 기둥 투수로 활약했죠. 자기 공에 확신이 컸던 유형이었죠. 일단 판단을 내리면 자신을 믿고 행동하는 스타일로 보여요.

●강철 같은 단단한 리더십

이: 맞습니다. 신중해 보이지만 과감해요. 결단력도 있고. 시즌 초 황재균 유격수 기용 등 파격적인 변화도 두려움이 없이 시도했죠.

정: 이대은의 마무리 기용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됩니다.

최익래(이하 최): 감독이 되어서도 선수 시절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투수 파트보다 야수 파트에서 과감한 작전이 돋보여요. 적극적인 앤드런 구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KIA 타이거즈에서 조범현, 선동열 감독 때 메인 투수코치를 맡았고,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에선 각각 염경엽 감독과 김태형 감독을 보좌하며 수석코치를 담당했는데 각 감독들의 장점을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색깔을 완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곧 KT의 역사다'라는 문자 메시지로 선수단을 감동 시키는 등 팀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모습도 보여주네요.

최: 선수~코치~수석 시절까지는 선수단과 밀고 당기기나, 카리스마있는 보습을 보여 줄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 감독이 된 후에는 온화한 리더십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부분으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7일 한화 이글스전 퇴장이 좋은 예죠.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땐 미디어도 적극 활용하고요.

●신인 감독 같지 않은 초보 사령탑

장은상(이하 장): 초보감독 티가 거의 없는 감독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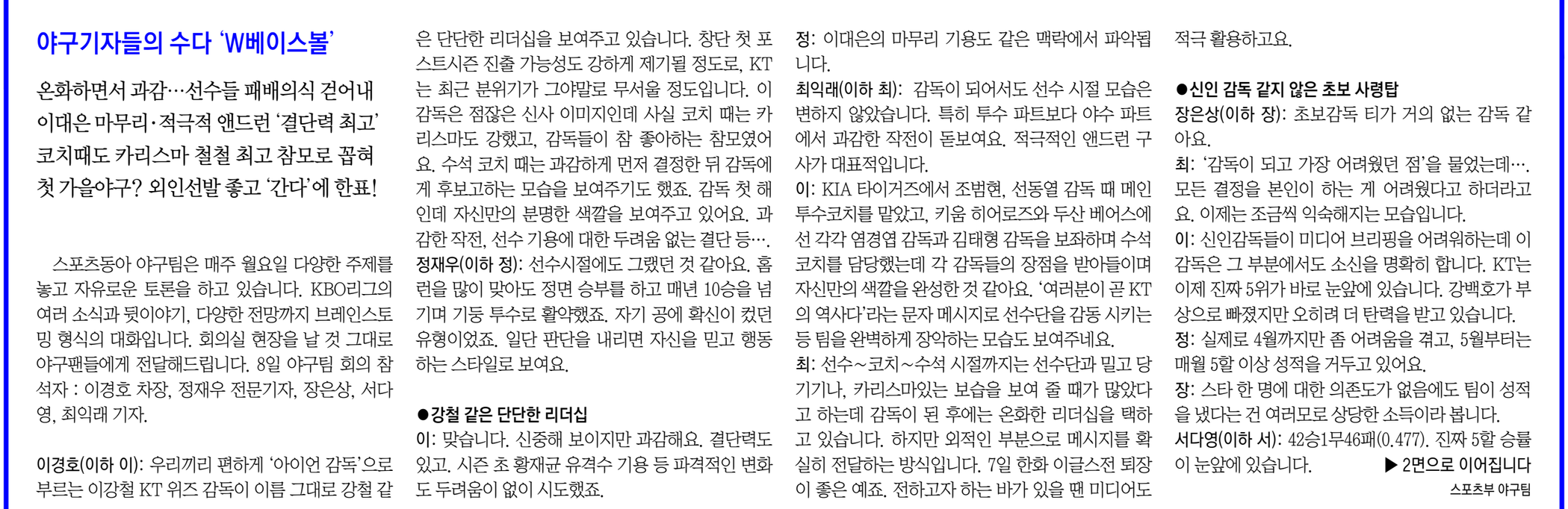
최: '감독이 되고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물었는데….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하는 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신인감독들이 미디어 브리핑을 어려워하는데 이 감독은 그 부분에서도 소신을 명확히 합니다. KT는 이제 진짜 5위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강백호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오히려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 실제로 4월까지만 좀 어려움을 겪고, 5월부터는 매월 5할 이상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장: 스타 한 명에 대한 의존도가 없음에도 팀이 성적을 냈다는 건 여러모로 상당한 소득이라 봅니다.

서다영(이하 서): 42승1무46패(0.477). 진짜 5할 승률이 눈앞에 있습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스포츠부 야구팀